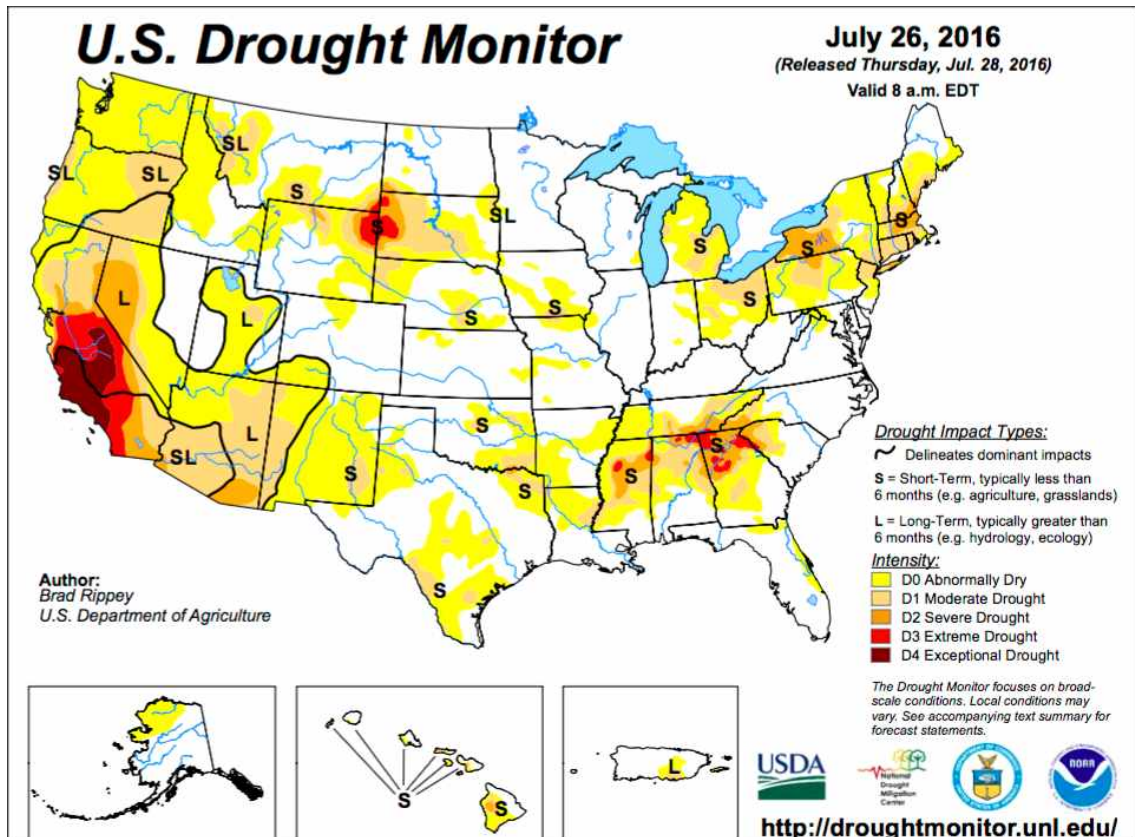


8월 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31)

□ 미국 기후 현황(7/24~7/30)

대평원과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고, 남부와 동부의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소나기가 내렸다. 오하이오, 미시간, 사우스다코타의 일부 분지 지역에서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다 남부의 미시시피 델타, 대서양 연안 중북부 지역에서는 저기압과 멕시코 걸프 연안에서 시작된 기류의 영향으로 2~4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동부 일대에서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으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새롭게 관찰되거나 가뭄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부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더위로 인해 이 지역들의 기온은 평년에 비해 5~10°F 이상 높은 편이다. 아리조나와 뉴 멕시코 전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서부지역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농업 현황 요약(7/25~7/31)

동부와 서부 전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이상 높은 날이 이어졌고, 대평원 북부지역에서부터 미시시피 강 일대에 이르는 중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은 날씨를 보였다. 오하이오와 대서양 연안 중부 일대에 위치한 주에서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서는 6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 옥수수

7월 31일 기준, Silking 단계가 끝난 지역은 9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p 앞선 상황이고,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6%p 앞선 것이다. 18개 모든 주에서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옥수수 재배지의 30%에 이르는 지역에서 dough 단계에 접어든 비율이 3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p 앞서는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5%p 앞선 수치이다. 응답자의 76%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6%p 높은 수준이다.

■ 대두

지난 7월 31일 기준, 전국적으로 85%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화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p 앞서고,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6%p 앞선 수치이다. 응답자의 72%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9%p 높은 수준이다.

■ 겨울밀

7월 31일 기준 수확률은 89%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보다는 3%p 낮은 수준이다. 오레곤, 몬태나 등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각각 29%p, 34%p 증가했다.

■ 면화

7월 31일 기준 92%가 squaring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p 앞선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앞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54%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3%p 낮은 수치이다. 텍사스 일부 지역 및 헤안가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작업이 시작되었다. 전국적으로 50%의 응답자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2%p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7%p 낮은 수준이다.

■ 쌀

7월 31일 기준 전체 재배지의 71%가 출수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1%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7%p 앞선 수치이다. 미시시피 강 일대의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텍사스에서는 거의 모든 재배지에서 출수기를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6%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4%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7/24~7/30)

■ 유럽: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주 후반 비가 내리기 전까지 겨울작물의 수확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주 초반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주 후반으로 가면서 몇 차례 소나기가 내렸다. 독일, 폴란드 등에서도 강우량은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보다 남부의 스페인 북부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37°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와 함께 맑은 날이 이어졌다. 이와 달리 이탈리아 북부와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도 35°C 미만에 머물러 더위로 인한 작물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뉴브 강 동부에서는 지난 30일 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25% 수준에 머무르는 등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도 몇 차례 내렸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일대에서는 10~70mm 내외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지난 주 잠깐 동안 기승을 부렸던 더위가 물러갔고, 낮 최고기온도 35°C 미만으로 내려갔다. 러시아 남부의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7월 중순부터 후반까지 낮 최고기온이 35~41°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8월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수확작업 및 겨울밀 파종에 적합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에서는 비가 내렸다. Liaoning에서부터 Jilin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Heilongjiang에서도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내몽고 일대에서는 10mm 내외의 아주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보다 남부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도 평년에 비해 5°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5°C 이상 오르기도 했다. 북한과 남한의 북서부 일대에서는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부와 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서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남동부 일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서부에서도 2~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그 밖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아르헨티나: 중부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렸다. Buenos Aires 동부와 중부 및 Entre Rio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La Pampa, Cordoba와 Santa Fe 남부에서도 1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와 달리 북부 전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중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낮았고, 북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C 이상 높았다. 남부에서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 이로 인해 겨울작물의 성장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7월 28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64%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8%에 비해 느린 편이다. 밀의 수확률은 8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p 느린 편이다.

■ 브라질: 남부의 곡창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낮 동안에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20°C 주반까지 올랐으며 밤 동안에는 기온이 5°C 미만으로 내려갔다. Parana 주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Parana 내 밀 파종작업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모작 옥수수의 수확률은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밀 파종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Mato Grosso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7월 28일 기준 옥수수 수확률이 85%인 것으로 나타났다.